

# 실무자 인터뷰를 통한 청주시 아동 그룹홈의 주거 개선 요구 조사

이상우\* · 이민서\*\* · 우자강\*\* · 이현정\*\*\*

## Assessment of Needs for Housing Improvement of Children Group Homes in Cheongju through Interviews with Group Home Directors and Staffs

Lee, Sang Woo · Yi, Minseo · You, Zikang · Lee, Hyun-Je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needs for housing improvement of children group homes in Cheongju-si through interviews with the group home directors and staffs. From April 6, 2018, to April 25, 2018, a series of face-to-face interviews with four directors and three staffs working in four children group homes was conducte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echnique. Highlights of major findings and implications were as follow: (1) Bedroom: Needs for independent bedrooms and desks for each child were dominant. (2) Common activity space: Interviewees showed somewhat different opinions on common activity spaces according to group home types and/or between directors and staffs. (3) Between “a big and good-quality house” and “a house in good location”, interviewees were found to prefer “a big and good-quality house” in order for children to have enough space to run and play. (4) Interviewees insisted that to provide proper group home services and protection similar to a real family, current policy to accommodate up to eight children in one group home should be improved.

**키 워 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인터뷰, 주거개선, 주거실태

**Key Words:** Children Group Homes, Housing Welfare, Interview, Housing Improvement, Housing Condition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가정 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은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가족구성원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아동일 것이다(김나연, 2001).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가족구조의 약화와 핵가족화, 급속한 가족해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학대, 방임, 유기될 받게 되었으며, 그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김현정, 2008). 지금 우리의 현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부모가 없는 고아라기보다는 부모가 모두 있거나 한쪽 부모는 있어도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스스로 가출하여 요보호상태에 있는 아동이 더 많은 상황이다(김나연, 2001).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은 해체된 가정의 아동에게 시설보호를 결정하는 사후적인

대리서비스 위주였다면 이제는 예방적인 아동보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가장 친밀하고 영향력 있는 사회적 환경은 가정이다(진정숙, 2002).

아동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터전이 되는 가정이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면 아동에게 그 가정을 대신할 만한 대체가정을 만들어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산업화 이후 요보호아동의 대형보육시설에 수용이 그 부작용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룹홈은 가정을 상실한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대규모 시설 수용에 따른 시설의 부정적 요인을 현격히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조성금, 2002).

아동시설보호 서비스는 단순 수용 보호적 차원이 아니라, 영구적 가족기능의 확대와 아동발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요보호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보호·양육되기에는 시설의 규모가 대규모화 되었으며, 퇴소 이후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그렇지 못한 현실에 처해 있

\* 신원종합건설사 사원.

\*\*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학부졸업생.

\*\*\*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교신저자 (hlee@cbnu.ac.kr)

다(장진희, 허청아, 2015).

아동의 주거환경은 아동의 생존 및 일상생활, 그리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주거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가족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주거환경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김광혁, 2010).

대규모시설보호 아동의 자립 및 사회성함양의 대안으로 그룹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룹홈의 역할은 아동들에게 집단생활을 통하여 가정 생활습관을 습득시키는 역할, 사회성을 길러주는 역할 그리고 사회자원을 활용하는 역할과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시켜주는 역할 등 아동들에게 대안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성숙된 사회성을 가지게 하는 데 있다(김배현, 2001).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주택에서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규모로, 혈연과 무관한 아동·청소년 집단과 어른이 함께 거주하며 보호와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김광수, 2013).

그룹홈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보호와 더불어 가정적인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의 전문성과 가정위탁의 가정적 보호를 포함하는 가장 이상적인 보호형태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상운, 2016).

하지만 현재 그룹홈에 관련된 연구로는 그룹홈의 활성화 또는 그룹홈에 생활하는 아이들의 학교 적응력, 심리·정서 연구가 대부분이며, 현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룹홈의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본 연구는 청주시 아동 그룹홈 실무자 인터뷰를 통하여 아동 그룹홈의 주거 실태와 개선 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아동 그룹홈의 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2.1 조사대상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청주시 소재 25개 아동 그룹홈 중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2개소의 원장 2인과 직원 2인, 일반 아동 그룹홈 2개소의 원장 2인과 직원 1인을 추천받았으며 사전에 개별 연락하여 면접진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 1.2.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연구자가 자체개발한 반구조화된 개방형 면접 질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1

차 작성된 질문지는 조사대상자 중 원장 2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보완 하였다. 최종 확정된 질문지는 총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총 34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 1.2.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자료는 2018년 4월 6일부터 2018년 4월 25일 까지 개인 대면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제별 분석법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기존 문헌고찰

### 2.1 아동 그룹홈의 정의 및 발달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n.d)에서는 그룹홈을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라 정의하고 있다.

미국아동복지학회에서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소규모이고 지역사회 내에 위치해 있으며 가정적 보호가 가능한 12인 이하의 소규모 주거시설”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임을 뜻한다(진정숙, 2002).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시설보호 위주의 아동보호에서 전환하여 소규모 방식의 보호가 시작된 것은 1965년 S.O.S 마을부터라도 볼 수 있다(김나연, 2001).

### 2.2 아동 그룹홈 현황

보건복지부의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8)에 따르면 아동 그룹홈은 2005년 154개에서 2016년 510개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점차 증가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공동생활가정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Table 1. 전국 아동 그룹홈 설치 현황

연도	2005	2010	2015	2016
설치 수(개)	154	416	480	510

출처 : 보건복지부(2018). 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 p.111

국내이비스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충청북도 내에 총 45개의 아동 그룹홈이 설치되어 265명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그 중 25개(56%)가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아동 그룹홈이 도시위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인구부문 자료(국가 통계포털, n.d.)에 따르면 같은 해 충청북도 거주 만 19세 미만의 아동인구는 총 273,605명으로, 아동인구 대비 그룹홈 거주 아동인구 비율은 약 1,032.5:1이다.

### 2.3 관련 선행연구 동향

아동·청소년 그룹홈과 관련된 연구 중 나명희(2017)는 그룹홈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환경 특성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 있어 일상적 스트레스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파악하였다. 김현정(2008), 장진희, 허청아(2015), 조성금(2003)은 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예산 및 인력 지원, 종사자 근무처우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조사 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 그룹홈 이외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공간 사용행태나 요구도를 분석한 연구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김종만, 신경주, 2015; 석기원, 남경숙, 2018; 이승일 외, 2020).

이와 같이, 아동·요보호아동의 심리적 특성과 종사자 근무 개선방안, 지원, 그룹홈 설치기준 등 운영에 관한 이론체계 연구는 많지만 그룹홈 물리적 환경의 특성이나 이용행태, 개선에 대한 요구도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3. 분석 결과

### 3.1 조사대상자 및 그룹홈 특성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학대피해아동그룹홈 원장 2인과 직원 2인, 일반아동그룹홈 원장 2인과 직원 1인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4개 그룹홈 및 인터뷰 참여자(피조사자)의 일반적 특성은 각각 Table 2, Table 3과 같다.

Table 2. 인터뷰 참여자 근무 그룹홈 특성

기호	SA	SB	GA	GB
구분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일반 아동 그룹홈	일반 아동 그룹홈
성별 제한	여	여	남	여
아동 연령대	초, 중학생	중학생	중, 고, 대학생	유치원~고등학생
수용아동 수(명)	2~8	3~8	6	7
아동 방 수(실)	3	3	3	3
방별 사용 인원(명/실)	1	1	2	2~3
직원 수 (원장포함, 명)	5	5	3	2
사무실 수(실)	1	1	0	0
별도의 직원 방 수(실)	0	0	1	0
화장실 수(실)	2	2	3	2
주택형태	빌라	아파트 (LH전세)	다세대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별도의 상담 및 치료실 수(실)	1	0	0	0

Table 3. 인터뷰 참여자 특성

구분	직위	기호	성별	연령대	현재직위 경력	그룹홈
학대피해 아동그룹홈	원장	SD1	여	30대	8년	SA
		SD2	여	30대	3년	SB
	직원	SW1	여	30대	2년	SA
		SW2	여	20대	1년	SB
일반 아동그룹홈	원장	GD1	남	50대	9년	GA
		GD2	여	50대	2년	GB
	직원	GW2	남	50대	2년	GB

### 3.2 아이들 방(침실)

아이들 방의 개수는 평균 3개로 각 방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방 별로 나눌 때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SA, SB는 아동의 성향 및 특성에 따라 방을 나누는 반면 일반가정아동 그룹홈 GA, GB는 아동의 연령대별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 그룹홈과 일반가정아동 그룹홈의 운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 학대 유형이나 성향에 따라서 나눠요. 성학대, 문제행동이 심한 아이들이 많아요. 사춘기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별도로 방을 사용하도록 해요. 입소 성향에 따라 방을 나누는 편이에요. (참여자 SD1)”

“어려서는 형제들끼리 사용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방을 사용하도록 해요. (참여자 GD1)”

“큰 아이들은 공부해야하고, 어린아이들은 많이 놀이활동을 하니까 방을 연령대별로 나뉘어요. (참여자 GD2)”

아이들 인원 또는 그룹홈의 면적에 비해 방의 개수와 크기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방의 수와 크기 모두 적당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GD1 한명이며,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SW2 한명이었다. 나머지 참여자는 방의 개수와 크기 둘 중 하나에 대해 좁다고 답변하였다.

“방 하나를 셋이 사용하기에는 벅차요.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GD2)”

“아이들 방에 책상과 옷장을 넉넉하게 설치해주고 싶은데 침대만으로 자리가 딱 차서 거실로 빼야만 해요. (참여자 SW2)”

현재 사용중인 아이들 방에서 가장 개선하고 싶은 점에 대한 질문에서 참여자 SD1, SD2, GD1은 아이마다 한 개의 방을 주어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고 답변하였다. 참여자 SW1은 개인마다 사용하는 책상을 놓아주고 싶다고 하였고, 그룹홈 GB의 원장 직원 모두 현재 운영하는 그룹홈의 평면구조를 바꾸고 싶다고 답변하였다.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의 경우에는 학대유형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침구가 개별적으로 있어야 해서 2층 침대를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좁아지죠. 아이들이 침대가 있을 때 없을 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달라요. 2층 침대의 경우 공기 순환이 잘 안되서... 개별 방을 주면 좋죠 오래된 가구도 바꾸고 싶어요. (참여자 SD2)”

“방을 두 명씩 사용하다보니까 자기의 독립적인 개인공간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독립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지요. (참여자 GD1)”

“저희 집 형태가 주방을 사이에 두고 방 양 쪽이 있어서 불편해요. 아침에 더 자도 되는데 주방에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에 깨니까... 구조는 좋지 않아요. (참여자 GD2)”

### 3.3 거실 및 활동공간, 베란다

인터뷰를 위해 방문했던 4개의 그룹홈 모두 베란다는 사용하고 있었다. 그룹홈 SA는 베란�다에 아이들의 장난감과 책을 놓아 놀이 및 독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 외 다른 그룹홈 SB, GA, GB는 창고로 사용하거나 세탁기를 놓아 빨래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화분을 놓은 그룹홈도 있었다.

“저희는 베란다에서 책도 읽고 거실이랑 같이 쓸 수 있고 있어요. (참여자 SD1)”

“앞베란다, 뒷베란다 나누는 구분이 있어요. 복도식 아파트에 가벽을 설치해서 막아놨거든요 건축법상 걸리는데 거기에다 창문을 설치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창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 창을 설치해서 세탁실 겸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참여자 SD2)”

“앞베란다는 좁아서 사용하기 좀 그렇고 뒷베란�다는 창고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 짐이 많아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참여자 GD2)”

거실은 4개의 그룹홈 모두 거실에 이동형 책상을 놓아 아이들의 공부 및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룹홈 SA, SB, GB는 거실에서 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여 거실 및 베란�다의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반면, 남자아이 그룹홈 GA의 경우 각자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낮은 빈도수를 보여 여자아이 그룹홈과 차이를 보였다.

“저희는 되도록 방에서 나오라고 해요. 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눈에 띄게 모든 활동을 거실에서 진행하도록 해요. 숙제나 책 읽는 것도 거실에서 많이 해요. (참여자 SD1)”

“침대를 방에 놓다보니까 책상을 방에다 놓을 수 없어서 거실에 책상을 다 놓았어요. 아프거나 개인 공간이 필요한 아이들만 방을 이용하도록 해요. 대부분 놀이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땐 거실로 유도를 해요. (참여자 SD2)”

“아이들 여가활용을 해요. 티비를 본다면가 바둑을 둔다면가 집단 상담을 할 때에도 거실을 활용해요. 아이들이 조용해서 거실에서 뛰어놀고 그런 것은 없어요. 아이들이 많이 커서 조용해요. (참여자 GD1)”

“거실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저녁에 다같이 공부를 해요. 초등학생 경우는 숙제지도하

거나 준비물 지도를 하고... 언니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방으로 들어가고 평소에는 거실에서 같이 공부해요. 여기에서는 영화를 본 다던가 자유롭게 간식 먹을 때 거실을 사용해요. (참여자 GD2)”

거실 및 활동공간, 베란다, 발코니에서 이용하는 가구는 4개의 그룹홈 모두 일반 가정집 가구와 같다고 답변하였다. 그룹홈 SA의 경우 거실에 컴퓨터를 놓아 아이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그룹홈 GB는 거실 한쪽에 원장 책상을 놓아 원장이 사무를 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은 거실에 놓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참여자 SD2)”

“저희 딸들도 이 상태에서 키웠고 이 공간에서 그룹홈을 운영하기 때문에 가구는 똑같아요. (참여자 GD2)”

아이들 인원이나 그룹홈 면적에 비해 거실의 크기를 물었을 때 그룹홈 SA의 참여자 SD1은 인원과 면적에 비해 거실 크기가 좁다고 답변한 반면 참여자 SW1은 거실의 크기가 적당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그룹홈 SB의 참여자 SD2는 면적에 비해 적당하다 느낀다고 답변한 반면 참여자 SW2는 아이들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좁다고 답변하여 그룹홈 SA, SB의 경우 원장과 직원 사이의 답변 차이를 보였다. 그 외 그룹홈 GA, GB는 면적에 비해 넓거나 적당하다고 답변하였다.

“정원 내 있으면 불편한 점은 없는데 일시보호 아이들까지 있으면 딱 차기는 해요. 거실이 크긴 하는데 아이들이 많으면 딱 차죠. (참여자 SD1)”

“거실에다 충분히 물건을 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거실에다 (물건을) 놓지, 베란다가 활용 안하죠. 아이들의 짐도 많고 책도 많고 장난감도 많고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공동생활가정이...(협소하다.) (참여자 SD2)”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같은 경우는 가끔씩 아이들이 몰려 들어올 때 10명이 될 때도 있는데... 이때는 무조건 거실에서 재워야 되는 부분이 있죠..(참여자 SW1)”

현재 사용 중인 거실 및 활동공간, 베란다는 개선하고 싶은 점에 대한 원장과 직원의 답

변 차이를 보였다.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의 참여자 SD1과 SD2는 오래된 공간 위주로 개선하고 싶다는 답변을 한 반면 참여자 SW1과 SW2는 아이들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고 하였다. 일반가정아동 그룹홈의 원장 GD1과 GD2는 베란다가 안전시설을 설치했다면 한다고 답변하였고, GW2는 개선하고 싶은 공간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어릴 때는 아이들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밖이 궁금해서 내다보거나 호기심에 물건을 던지기도해서 많이 위험해요. 이런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베란다가 위험해서 화초를 키우는 거예요. 안전한 베란다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GD1)”

“베란다는 위험할 것 같아요. 되도록 안 나가도록 하고... 오히려 화분이 있어서 안전해요. (참여자 GD2)”

### 3.4 주방

그룹홈 주방에서 식사준비를 하는 것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가 있냐는 질문에 4개의 그룹홈 모두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요리활동을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 외 추가적으로 그룹홈 GB에서는 아이의 학교생활 등 개별 상담을 식탁에서 진행한다고 답변하였다.

“요리 프로그램 할 때는 주방에서 아이들과 같이 해요. (참여자 SD1)”

“요리 프로그램 진행 할 때, 음식과 관련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주방에서 하는 편이죠. 그 외 회의장소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참여자 SD2)”

“특별활동으로 아이들 자립지원교육 요리프로그램을 해요. (참여자 GD1)”

“아이하고 주방 식탁에서 간단한 학교이야기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거나 자기가 하고싶어 할 때는 식탁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상담을 해요. (참여자 GD2)”

아이들의 신체에 비해 주방의 가구나 집기, 설비들은 그룹홈 SA, SB, GA는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신체적인 불편함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그룹홈 GB는 유치부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가구가 크기 때문에 좌식 식탁을 이용해 식사를 한다고 하였으며, 키가 작은

아이들의 경우 바닥에 발판을 놓아 싱크대를 이용하는다고 하였다.

“너무 어린 아이들은 안 시키고 주로 큰 언니들이 도와줘요. (참여자 SD1)”

“저학년 아이들은 뺄고 이럴 때 한번 해보는 정도예요. 큰아이들은 자립교육을 하기 때문에 요리를 하고 설거지도 해요. 언니들이 설거지를 할 때 아이들도 설거지를 하고 싶어서 발판 놓고 올라가서 설거지를 해요. (참여자 GD2)”

“저학년 어린이들은 식탁이 커서 바닥에 식탁을 놓고 앉아서 밥을 먹어요. (참여자 GW2)”

### 3.5 화장실

인터뷰 결과 화장실 개수는 그룹홈 SA, SB, GA는 2개로 나타났고 그룹홈 GB만이 3개로 화장실이 2개인 그룹홈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이 아침 등교나 화장실 사용 시 인터뷰한 그룹홈들 모두 아이들이 직접 순서를 정하거나 연령대마다 등교 시간이 달라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화장실 개수가 2개 이상이 적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룹홈 SB만이 아이들의 화장실 사용 순서를 직접 정해주었다고 한다.

“보통 34평내지 36평형인데 그럼 보통 화장실이 2개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구요. 아마도 대부분의 그룹홈들이 기본으로 화장실은 2개 일거예요... 화장실 2개이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어차피 아이들 연령대마다 등교 시간도 다르고, 만언니들이 순서를 정해줘요. (참여자 SW1)”

“다같이 놀러가거나 유독 복잡한 날에는 저희 직원들이 순서를 정해줘요. (참여자 SW2)”

“남자애들이라 씻는게 빨라서 화장실 사용가지고 싸운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같이 씻는경우도 많아서... (참여자 GD1)”

화장실 내의 가구·집기는 인터뷰한 모든 그룹홈이 거울, 세면대, 변기, 수납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해 일반 주택가정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그룹홈 GB의 참여자 GD2는 욕조 대신 샤워부스의 추가와 수납공간

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하였다.

“욕조를 드러내고 샤워부스를 설치하고싶어요. 욕조안에서 샤워를 해도 물이 다 튀더라고요. 샤워부스를 설치하면 같이 씻는게 가능하니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베란다가 워낙 넓으니까 거기다 많이 빼는데...(그래도 수납공간이 적다.) (참여자 GD2)”

### 3.6 사무실, 상담 및 심리치료실

제도적으로 종사자 배치기준과 심리검사·치료실 설치기준은 나와 있지만, 종사자가 머무르는 직원실과 심리검사·치료실 설치 수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분별없는 직원실과 심리검사·치료실의 필요성을 말했다. 사무실은 그룹홈 SA, SB가 1개씩 있었으며 그룹홈 GA, GB는 사무실이 없었다. 여기서 그룹홈 GA만이 별도의 직원실이 존재해 일반아동 그룹홈은 사무실의 부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담 및 심리치료실은 그룹홈 SA만 1개씩 있었으며 그룹홈 SB, GA, GB는 상담 및 심리치료실이 없었다고 답변해 비교적 상담 및 심리치료실의 부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님이 왔을 때 딱 불편해요. 원장님이 와서 잠깐 얘기해야할 때 어느때는 서류 때문에 서로 상의해야 할거 와있으면 아이들이 거실생활을 하다가 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참여자 GD2)”

그룹홈 SA는 사무실에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거나 여건이 될 때는 아이들 방에서 진행한다고 하였고, 그룹홈 SB는 치료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시 임의로 사무실과 아이들 방 중 빈 방에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진행한다고 답변 하였다. 그룹홈 GA의 경우 옥탑에 직원 책상을 놓고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며 필요시 아이들 대상으로 성폭력예방, 인권, 교통, 재난대비 등의 교육을 실시할 때도 사용 하였다. 그룹홈 GB는 거실 한쪽에 책상을 배치하여 사무를 본다고 하였으며 주방 식탁에서 상담을 한다고 하였다.

“저희는 별도의 공간(옥탑공간)이 갖춰져서 사무나 상담, 심리치료 등 해결이 되는데 다른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이 없잖아요. (참여자 GD1)”

각 그룹홈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인터뷰 결과, 그룹홈 SA, SB에서 참여자 SD1, SD2은 사무실에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한다고 하였고, 참여자 SW1, SW2는 별개의 휴식공간은 존재하지 않아 아이들이 등교 후나 틈틈이 휴식을 가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그룹홈 SB는 교대 근무 시 직원의 근무취침 시 사무실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룹홈 GA는 휴식을 마련된 개인 방에서 취한다고 하였고, 그룹홈 GB는 휴식공간은 따로 없다고 답변하였다.

“뭘 따로 저희들 휴식공간은 없죠.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그럴 때 잠깐씩 쉬는 거죠. 그런데 하루종일 원장님이랑 저희랑 붙어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 대한 비밀이 없죠.. (참가자 SW2)”

“직원의 휴식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체계가 뒷받침 돼야 따라오는 거잖아요. 생활시설 대비해서 급여도 그렇고 근무하는 시간도 그렇고 지원이 많이 부족해요. (참여자 SD1)”

사무실과 상담 및 심리치료실의 가구들은 각 그룹홈 모두 일반 가정과 같이 책상, 책장, 수납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집기는 없다고 하였다. 각 실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실이 있는 그룹홈 SA만 각 실의 목적에만 사용한다고 하였다.

직원 수와 그룹홈 면적에 비해 사무실과 상담 및 심리치료실의 개수와 크기에 대한 질문에 그룹홈 SA의 참여자 SD1은 직원 수에 비해 사무실과 상담 및 심리치료실은 좁고 개수도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참여자 SW1은 적당하다고 대답해 직급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그룹홈 SB의 참여자 SD2, SW2 모두 사무실은 협소함을 느껴 면적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룹홈 GA는 현재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그룹홈 GB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개수 및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답변하지 않았다.

“사무실이 없어 조금 큰 공간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그거는 1년 7개월 됐으니까 2년정도 더 하고 넓은데로 이사를 해야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실 마련을 위해) 칸막이를 할 구조가 아니에요. 큰 공간으로 이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참여자 GW2)”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과 상담 및 심리치료실

에서 개선하고 싶은 점을 질문하였을 때, 그룹홈 SA, SB의 참여자 모두 개인공간을 가지고 싶다고 하였으며, 참여자 SW2는 직원의 개인공간만 확보된다면 상담 및 심리치료실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그룹홈 GA는 시설면으로 우수하다 생각해 없다고 하였으며, 그룹홈 GB는 현재는 만족하지만 나중에 직원이 추가로 오면 개인 직원실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아이들과 관련된 통화를 할 때 독립된 공간이 없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사무실이 하나 더 있으면 훨씬 더 좋죠. 사무실이 조그만 공간이라도 분리 되어있으면 사무볼 때, 손님이 와도 그렇고... 분리가 되어있으면 훨씬 더 좋죠. (참여자 GW2)”

“전화를 할 때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중요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불편해요. 학교 선생님이나 원가족하고 통화를 할 때 아무 빈방 들어가서 문 잠그고 하면 아이들이 ‘엄마~’ 하고 눈치없이 두드리곤 해요. 그럴 땐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해요. (참여자 GD2)”

“공동생활가정은 직원실에도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죠. 원장이 옆에 있는데 커피마시고 놀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불편하겠죠. 공간이 배제되어있고, 애들 없을 때는 활용할 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의 공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 하기에는...(부적절하다.) (참여자 SD2)”

### 3.7 일반사항

그룹홈은 법적으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에 위치해 있으며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아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룹홈의 소셜믹스(social mix)를 유도하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그룹홈 대부분이 일반 아파트, 빌라 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교 또는 근린생활시설과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그룹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그룹홈 SA는 개인 주택이라 소음 발생 등에 의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 답변하였다. 그룹홈 SB, GB는 아이들 모두 사용가능한 넓은 거실이라 하였으며, 그룹홈 GA는 다용도 공간인 옥탑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룹홈을 새로 구해야하는 상황에서 ‘넓고 구성이 좋은 집’ 과 ‘좋은 위치에 있는 집’ 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룹홈 SA, SB, GA는 마당이 있는 넓은 집을 선택하였으며, 그룹홈 GB는 좋은 위치에 있

는 집을 선택하였다.

“아무래도 더 넓으면 아이들이 활동성도 보여지고.. 좁은 데보다는 넓은데서 지내는 게 아이들에게도 더 좋잖아요? (참여자 SD1)”

“요즘은 교통도 좋아지고 버스로 안가는 곳이 없어서 주변에 학교라든지 공원같은 시설 보다는 마당이 있고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기본적으로 시설에 오는 아이들은 억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풀어줘야 하는데 좁은 공간에서는 상대적으로 힘들죠.(참여자 SD1)”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워서 흙냄새 맡으면서 뛰어 노는 것을 가끔 동경해요. (참여자 GD1)”

“저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 거 하면 교통수단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도시내 켜있지 않아도 아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나 마트가 가깝게 있을 정도의 구조가 된다고 하면 조금 조용한데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것을 원하거든요. (참여자 SD2)”

“아무래도 근거리엔 학교를 다니는 것이 그룹홈의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흙을 밟으면서 아이들이 집을 지어갔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흙냄새 맡을 수 있는 그런 그룹홈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참여자 GD1)”

“사회적 위치를 봐야죠 가깝고 편의성있는... (위치로 가고 싶다.) 시설적으로 좋은 것 보다는 그런 게 아이들에게 더 낫죠. (참여자 GD2)”

현재 그룹홈에서 가장 개선하고 싶은 부분, 호은 다음 그룹홈 선택 시 고려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그룹홈 SA는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라 하였고, 그룹홈 SB는 아이들마다 개별적인 공간이라 하였으며, 그룹홈 GA는 높은 층이 아닌 단층의 주택을 원하다고 하였다. 그룹홈 GB는 많은 수납공간과 다용도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에 그룹홈을 시작한다면 조금 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요. 그 아이들의 독립적인 공간도 만들어 주고 싶

고... 연령대가 어린 아이들 때는 단층에서 운영하고 싶어요. 3층이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 발생도 많이 되고 단독주택으로 가서 운영하고 싶어요. (참여자 GD1)”

“주택이 제일 좋은데 선생님들이 관리하시기 힘들시죠. 시설관리가 제일 힘들고 아파트는 소음 때문에 힘들고 빌라도...(똑같죠) 아파트는 시설관리를 안한다는 게 제일 힘들죠. 장볼 때 빌라가 제일 힘들죠. 다 들고 올라가야하니 후원물품이나 짐 같은 거 옮길 때가 제일 힘들어요. (참가자 GD1)”

### 3.8 기타 그룹홈 개선 요구사항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현재 그룹홈이 가진 물리적 공간의 협소함을 말하고 있었다. 그룹홈의 역할은 아동들에게 집단생활을 통하여 가정 생활습관을 습득시키는 역할, 사회성을 길러주는 역할 그리고 사회자원을 활용하는 역할과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시켜주는 역할 등 아동들에게 대안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성숙된 사회성을 가지게 하는데 있다(김배현, 2000). 하지만 아이들을 최대 8명까지 수용하는 현재 그룹홈과 2~4명을 수용하는 일반가정은 아동 수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룹홈의 특성을 반영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기존의 주택을 사용함으로써 대안적인 가정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나타나 그룹홈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정과 괴리를 나타낸다. 이에 현재 그룹홈 물리적공간의 한계를 알 수 있었다.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연료난방비 같은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곳이라면 그런 지원책들이 활성화 돼서 지원을 많이 받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했으면 좋겠죠. (참여자 SD2)”

“일반 공동생활가정 경우에는 자립까지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 살 때 왔어도 졸업할 때까지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은 부모들이 빨리 좋아져서 아이들을 보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하고 가족화를 이뤄야하는 가정이 많다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참여자 SW2)”

“가장 오래된 아이는 초등학교 때 들어와서 지금 고등학생이니깐 8년이 넘었죠. 이런 아이들은 여기가 집이에요. (참여자 GD1)”



“그룹홈이라는 게 공동생활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런데 현실은 가정보다는 시설이라는 시선이 더 많이 느껴지죠. 일반 가정주택을 사용하지만 시설과 가정주택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참여자 GD2)”

건축법에 따르면 전용면적 82.5㎡ 이상의 주택형 숙소(시행규칙 별표1:제2호다목)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제도적 설치기준인 복도&#65381;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 이상으로 할 경우, 최대 수용인원 7명을 기준으로 아동의 거실면적은 약46㎡로 나온다. 이는 전용면적 82.5㎡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로 나와 있다. 인터뷰를 통해 현실에서 그룹홈은 최대 8명까지 아동수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침실 1개당 2~3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수용인원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 결과 아동 1명당 6.6㎡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방의 개수보다 거실, 방 등의 면적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설관리 할 때 주택이 제일 힘들고, 아파트랑 빌라는 소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그 대신 아파트는 시설관리를 안한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지요. (참여자 SD2)”

“지금은 우리가 생활하던 그대로인 상태에서 2층 침대만 들어와 있는 형태예요. 큰 데로 이사하면 더 낫겠죠. 화재감지기라던가 필수 소방시설은 다 했는데 거기에 가면 그런 시설이 다 있으니까. 스프링클러까지 되어있는데 여기는 옛날 건물이니까 스프링클러가 없어요. 거기(LH주택)에 가면 전문 시설처럼 설비가 잘 되어있으니까. 안전하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가야해요. (참여자 GW2)”

현재 모든 그룹홈들은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은 정부지원의 열악함과 추구하는 이상적 그룹홈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저희 그룹홈의 경우 같으면 부부가 운영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이런 체제가 아니잖아요. 하루 근무하고 하루 퇴근하는 보육사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어려워져서 1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종사가 구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 인력이 더 충원되면 낫겠죠. (참여자 GDI)”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정부지원이 열악하

다는 것, 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 ‘이걸 갖다가 생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룹홈을 운영하는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걸 생활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참여자 GDI)”

“처음에 자비로 한다고 한들 1~2년은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 아이들 생계비, 기초생활수급비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참여자 GDI)”

#### 4. 요약 및 결론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기반한 적용점을 크게 그룹홈의 물리적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제도 정비, 그룹홈의 물리적 공간 구성요선에 대한 개선방안 등 두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1 그룹홈의 물리적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제도 정비

그룹홈 내 생활하는 인원의 밀도가 높으면 아무리 원장, 생활지도사가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생활 할수록 그 생활환경은 지저분하고 불량해지게 되기 마련이다. 인터뷰를 했던 그룹홈의 경우 한방에 많게는 3명까지 생활하는데 인원이 많다보니 아이들의 짐 또한 많고 그런 짐들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공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룹홈에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은 경우 침실에 2층 침대를 설치하여 책상을 놓을 공간이 생기지 않아 책상을 거실에 따로 두어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그룹홈에서 개선하고 싶은 점을 인터뷰했을 때, 아이들마다 각자의 독립된 방을 제공하고 싶다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 한명 당 방 한 개를 주게 되면 방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 이는 시설화가 될 우려가 있다.

정기적으로 그룹홈의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룹홈의 물리적인 현황은 수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황을 수집, 분석 하더라도 실제 그룹홈을 운영하는 원장과 직원들은 정부 지원의 강화, 직원의 확충, 새로운 시설의 설치 등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현재 그룹홈의 구성요건에는 정원 7인 이내에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방의 개수가 적은 그룹홈의 경우에는 한 방에 최대 3명씩 생활해야 하는 현실이다. 전용면적 82.5㎡로 제한되어 있어 아동 7명을 양육하기에는 협소하기 때문에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평수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윤(2016)은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시설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룹홈의 경우 아무런 지원 없이 운영자 스스로 마련하기에는 그 비용이 크고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LH임대주택을 개인운영 그룹홈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해당 문헌에서 아동 1인당 거실 면적을 6.6㎡ 적용에 따라 아동 7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실면적은 46㎡로 14평이 되어야한다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실평수 기준으로 거실(방포함) 14평, 아동 방3개, 화장실 2개를 갖추기 위해서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기존의 시설들이 이전을 해야 하지만, 그 비용은 모두 운영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규 개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그룹홈의 면적 먼저 파악 한 후 그에 맞춘 침실 정원수를 조정하여 한 방에 최대 2명씩 정원 6명 이내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4.2 그룹홈의 물리적 공간구성요건에 대한 개선 방안

앞서 설명했던 건축법에 따르면 전용면적 82.5㎡ 이상의 주택형 숙소(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다목)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방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며 몇 개로 나누어야 하는지, 기존의 주택을 변형 시 필수되어야 할 공간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간에 대한 제안이나 법령은 나와 있지 않다. 앞선 연구결과를 보면 방의 개수와 면적 모두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룹홈이 지닌 특성을 반영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룹홈이라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개선보다는 시설 내의 각 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침실(아이들 방), 거실과 베란다, 화장실, 기타 공간구성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4.2.1 침실(아이들방)

아이들방은 그룹홈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공간이다. 앞선 연구결과를 보면 방의 개수와 면적 모두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평균 아이들방은 3개인 것에 비해 아이들 인원수가 평균 7명이 넘는 것을 봤을 때, 각 방당 인원수가 2명이 넘는다. 아이들이라는 기준으로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룹홈, 즉 공동생활가정은 최소 3세부터 최대 19세까지 대안가정으로서 다른 아

동복지시설에 비해 오래 머문다. 이는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그룹홈 아동들은 가정에서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받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아이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존중을 위해 개인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상 아이들방 자체를 확보하는 것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아이들방의 면적보다는 들어가는 가구를 바꿔야 한다. 대부분 아이들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 아이들방을 나누는데 이에 따라 가구배치도 다르게 해야 한다. 보통의 아이들의 경우 책상, 의자, 침대가 있으면 되지만 자해와 폭력적인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된 그룹홈 아이들은 가구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아이들방은 최소한의 가구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접이식 또는 조립식 가구를 배치해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쉽게 변형 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가구를 설치해 책상, 침대 등 미사용 시 공간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4.2.2 거실과 베란다

거실과 베란다는 아이들이 취침을 제외하는 시간에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거실은 면적에 비해 적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므로서 내부에 사용되는 가구 및 접근성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학업 및 놀이공간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상반되는 특성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거실은 여러 목적을 가진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실은 높은 사용 빈도를 지니고 있어 신체적으로 위험요소가 되는 가구는 제외해야하며 아이들의 접근 쉽도록 모든 방과의 연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 4.2.3 화장실

화장실은 연구결과에 따라 수와 면적의 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사람이 오랫동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룹홈 특성상 욕조를 제거하고 샤워부스를 설치해 면적과 쾌적성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신체가 아직 발달 중이 아동들을 위해 벽면에 손잡이를 설치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

##### 4.2.4 기타 공간구성

전반적인 공간구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좋은 위치의 집’ 보다 ‘넓고 좋은 집’을 원한다.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근접해야 하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마당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독립된 시설로서 주변의 민원 등을 신경쓰지 않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수평구조인 단층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통계과 현황 조사할 때만 필요한 그룹홈이 아닌 현실적인 지원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전문가들의 물리적 공간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4.3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아동그룹홈(학대피해아동그룹홈, 일반아동그룹홈)의 주거 실태와 개선 요구도를 실무자 인터뷰를 통하여 접근한 연구라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인터뷰 참여자를 원장과 직원으로 고르게 구성하여 섭외하였지만, 본 인터뷰에 참여한 일반아동그룹홈의 실무자가 30대 위주였던 것에 반하여 학대피해아동그룹홈 실무자들은 50대였던 차이가 나타났다. 인터뷰 참여자의 연령대 차이가 공간 요구도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유사연구를 진행할 경우, 실무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대, 근무경력 등에 대한 세심한 배분이 고려되면 더 논리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사)한국생활과학회 2018년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포스터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 REFERENCES

국가통계포털 (n.d.), 인구총조사(인구부문): 연령 및 성별 인구, <http://kosis.kr>에서 발췌

김광수 (2013), 아동·청소년 그룹홈의 이해, 서울: 학지사.

김광혁 (2010), 한국 아동의 생존권: 빈곤 및 가족, 주거환경, 안전, 건강 및 의료의 실태 및 변화 추이, 아동과 권리, 제14권, 제1호, pp.1-39.

김나연 (2001), 사례연구를 통해서 본 아동그룹홈: 서울 SOS어린이마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강대학교, 서울.

김배현 (2001), 아동복지시설 내 청소년의 사회성 차이 연구: 대규모시설과 소규모(G.H)시설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

대학교, 서울.

김종만, 신경주 (2015). 노인복지주택 거주자 이용 특성을 통한 필요 공간 분석: 수도권 6개 시설의 공용시설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제49권, pp.141-151.

김현정 (2008), 전국 학대피해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광 제114권, pp.151-208.

나명희 (2017), 그룹홈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환경 특성과 심리 사회적 적응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세한대학교, 전남 영암군.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4220](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4220)에서 발췌

석기원, 남경숙 (2018), 인구변화에 대응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공간대생을 위한 사례분석 및 사용성 평가, 한국공간디자인학회, 제13권, 제6호, pp.213-224.

이상운 (2016),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현황과 현안문제,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개선과 그룹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p.41.

이승일, 김주연, 안진근, 김성배 (2020), 노인 복합 커뮤니티케어 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제3호, pp.117-126.

장진희, 허청아 (2015),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전환비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조성금 (2003), 요보호아동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 청구논문, 명지대학교, 서울.

진정숙 (2002), 한국 아동그룹홈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수원대학교, 화성.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n.d.), 그룹홈 소개, [http://www.grouphome.kr/pages/page\\_104.php](http://www.grouphome.kr/pages/page_104.php)에서 발췌

논문투고일 2020년 08월 28일  
 논문심사일 2020년 12월 09일  
 논문게재일 2020년 12월 30일